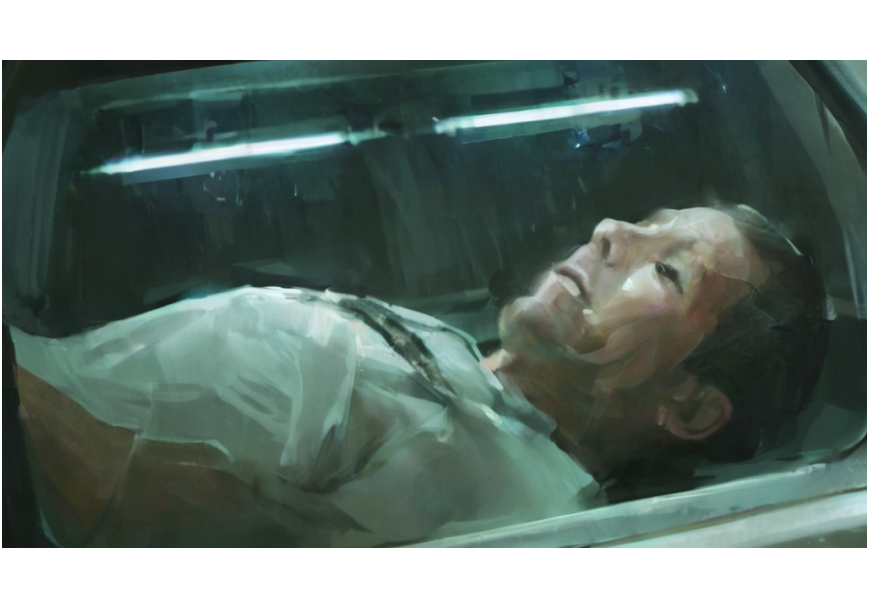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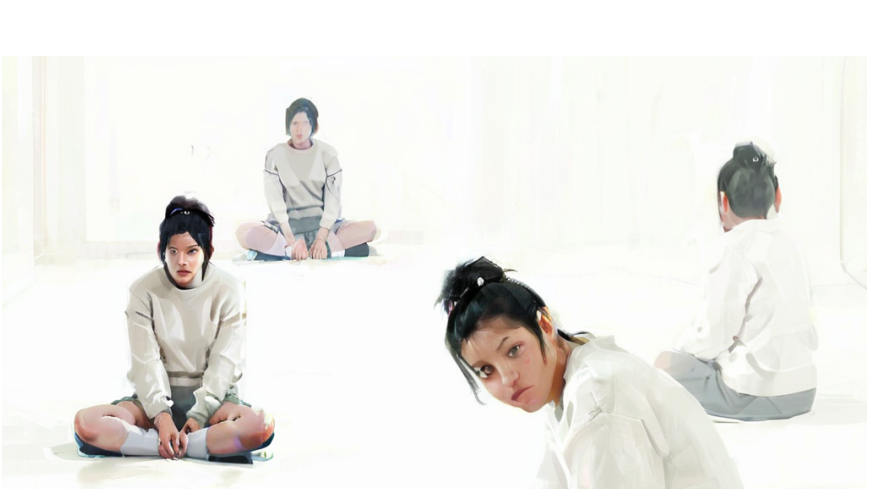


동녘이 캡슐 위에 눕자, 은성이 접속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원이 동녘을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조작을 가하자 동녘의 몸이 움찔하고 경련을 일으켰다.

동녘의 의식이 정신을 차린 것은 컴퓨터 안에 구현된 하얀 방의 시뮬레이션 공간이었다. 하얗고 거대한 추상 공간을 둘러보니 여러 서현 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느 서현에게 말을 거는 게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던 동녘이 일단 모두에게 말을 걸었다.

"서현아."

서현 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동녘은 자신의 몸이 - 사실은 시뮬레이션 안에서 구현된 형상에 불과했지만 - 자꾸만 지직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직거릴 때마다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동녘은 자신의 형상이 동녘의 형상과 지후의 형상으로 번갈아가며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기억을 깨워주면 안될까?"

동녘이 혼란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다.

"싫어. 난 하고 싶지 않아."

방 안에 있는 모든 서현이 동시에 말했다.

"내 기억을 깨워주면 널 여기서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은성이와 함께 말이야."

방 안에 있는 모든 서현이 일제히 동녘을 바라보았다.

"은성은 없어."
"뭐?"
"도망가. 모든 걸 다 망쳐버리기 전에."

동녘이 여러 서현 중 한 서현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서현은 동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동녘이 뒤로 물러났다.

"넌 지후보다는 동녘이 어울려. 순수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지후도 동녘 같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랬지."

동녘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지후도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영생이 가능하다 해도 시간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동녘이 덥석 서현을 껴안으며 말했다.

"서현아, 방법은 틀렸을 지언정, 난 항상 너를 사랑해왔어…."

서현의 동공이 커졌다. 그와 동시에 동녘의 머릿속에 수많은 섬광이 폭발하듯 번쩍이기 시작했다. 동녘은 두통을 느끼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지후가 동녘을 인큐베이팅하는 모습, 알 수 없는 설계도, 비밀을 드러내는 숫자, 끝 없이 이어지는 파이의 숫자 이미지 들이 이어졌다.

서현이 동녘을 떠밀었다.

"얼른 나가! 여기서 도망쳐!"

펑! 동녘을 떠민 서현의 머리가 총성과 함께 폭발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서현 들의 머리도 총성과 함께 하나씩 터져나갔다. 동녘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재호가 총을 든 채 저 멀리서 나타났다.

"비밀 코드는 다 풀렸고, 너희 둘을 어쩌야 할까?"
"은성이를 지운 건가?"

동녘이 날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은 안 지웠다. 하지만 이제 비밀을 풀었으니 완전히 지울 수 있겠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은성을 없애고 네 자신을 클론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은성은 엔지누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난 엔지누스의 성질을 만들 수 없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걸 보니 아직 기억이 온전하게 돌아오지는 못했나 보지?"

유일하게 한재호의 총에 의해 머리가 터지지 않은 서현이 이빨을 까득거리며 한재호를 노려보았다. 서현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져 죽었던 순간의 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후의 몸에 라이딩을 한 채 서현을 겁탈하려 했던 이의 정체가 바로 한재호였다.

"그래,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지."

한재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끅끅거리며 말했다. 그러다 일순 표정이 차가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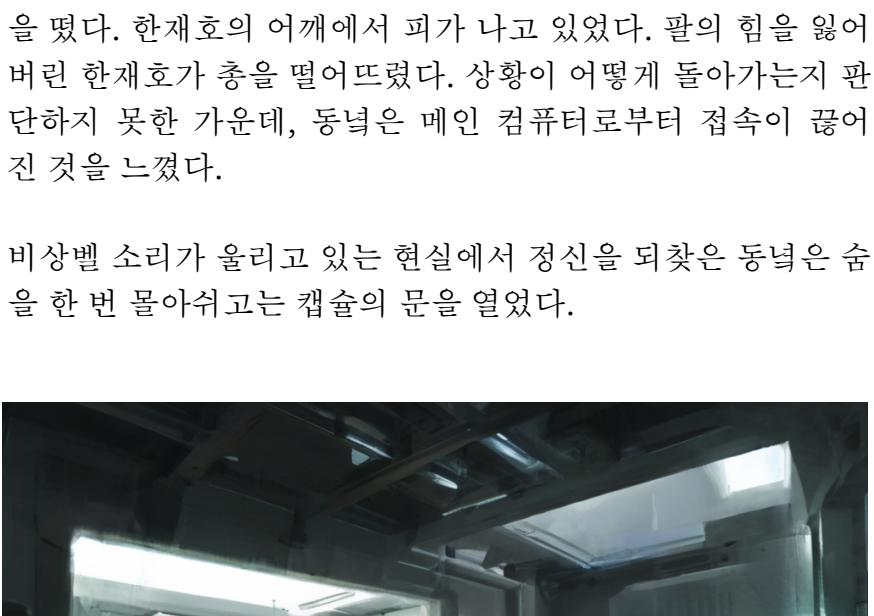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한재호는 '이제 죽어라'라는 표정으로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동녘과 서현은 질끈 눈을 감았다.

❖

총성이 울렸지만,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 동녘이 긴장한 채 눈을 떴다. 한재호의 어깨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팔의 힘을 잃어버린 한재호가 총을 떨어뜨렸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하지 못한 가운데, 동녘은 메인 컴퓨터로부터 접속이 끊어진 것을 느꼈다.

비상벨 소리가 울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을 되찾은 동녘은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캡슐의 문을 열었다.



총격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주변에 있는 모든 캡슐 주변에는 총알 자국과 그로 인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울리고 있는 비상벨과 썩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자세히 보니, 한 서현을 제외한 모든 서현이 총에 맞아 죽어 있었다.

"서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녘이 총에 맞지 않은 유일한 서현에게 물었다. 서현이 손가락으로 동녘의 뒷편을 가리켰다. 동녘이 몸을 돌리자, 메인 컴퓨터에 접속한 은성이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은성의 옆에는 총을 든 코카가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뒤늦게 오리엔티스 군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원들이 은성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코카는 동녘, 서현의 팔을 붙잡고 메인 컴퓨터실을 빠져 나갔다. 동녘과 서현은 한참동안 코카를 따라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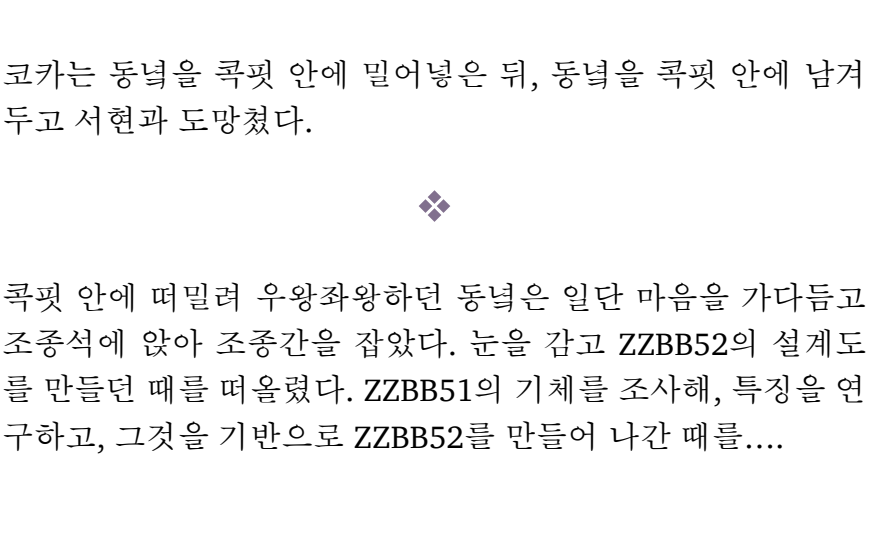
코카가 앞장 서 도착한 곳은 오리엔티스 기지의 격납고였다. 격납고 안에는 ZZBB51과 ZZBB52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코카는 두 아머 유닛 기체가 있는 곳을 향해 동녘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ZZBB52를 작동 시켜! 서현과 나는 따로 탈출할게!"
"전에 작동시키려 했을 때 파일럿 승인이 안 된 데다가 지금은 캣츠아이도 없어!"
"지후의 기억이 돌아왔잖아! 이제 가능할 거야!"

코카는 동녘을 콕핏 안에 밀어넣은 뒤, 동녘을 콕핏 안에 남겨두고 서현과 도망쳤다.

❖

콕핏 안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던 동녘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조종석에 앉아 조종간을 잡았다. 눈을 감고 ZZBB52의 설계도를 만들던 때를 떠올렸다. ZZBB51의 기체를 조사해, 특징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ZZBB52를 만들어 나간 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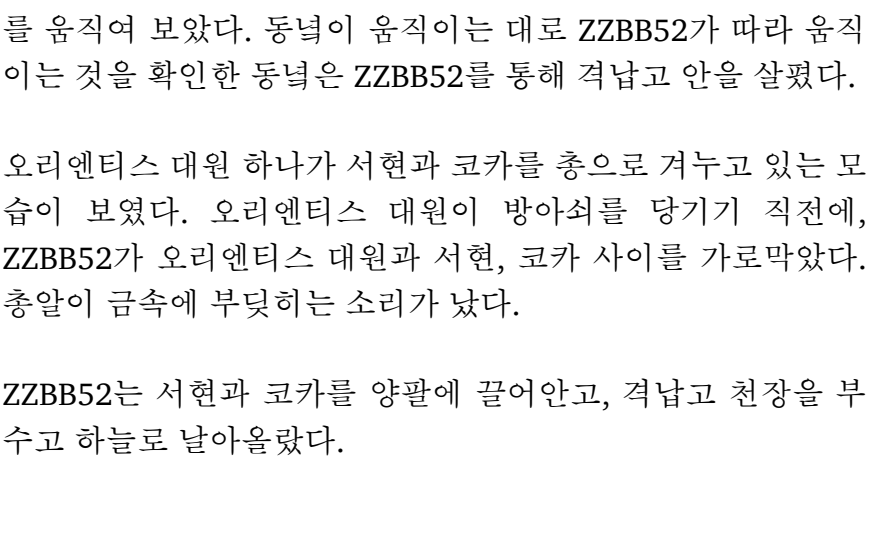
그때 갑자기 ZZBB52 콕핏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콕핏 안에 조명이 들어오더니, 화면이 켜지며 텍스트가 떠올랐다.

[파일럿 승인 완료]

ZZBB52이 작동을 시작한 것이다. 동녘은 테스트삼아 ZZBB52를 움직여 보았다. 동녘이 움직이는 대로 ZZBB52가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동녘은 ZZBB52를 통해 격납고 안을 살폈다.

오리엔티스 대원 하나가 서현과 코카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오리엔티스 대원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ZZBB52가 오리엔티스 대원과 서현, 코카 사이를 가로막았다. 총알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ZZBB52는 서현과 코카를 양팔에 끌어안고, 격납고 천장을 부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

은성은 어깨에 붕대를 감으며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현 시점부터 휴먼넷을 활성화한다. 마더 컴퓨터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 작업은 내가 직접 하겠다. ZZBB51로 ZZBB52를 뒤쫓을 테니 대원들은 여기서 나를 서포트 해주길 바란다."

명령을 마친 은성은 마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송신 장치를 뒷목에 연결하고, 증강현실 고글을 장착했다. 치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단장, 그 모든 프로세스를 정말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버클럭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난 엔지누스다.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명령에만 따르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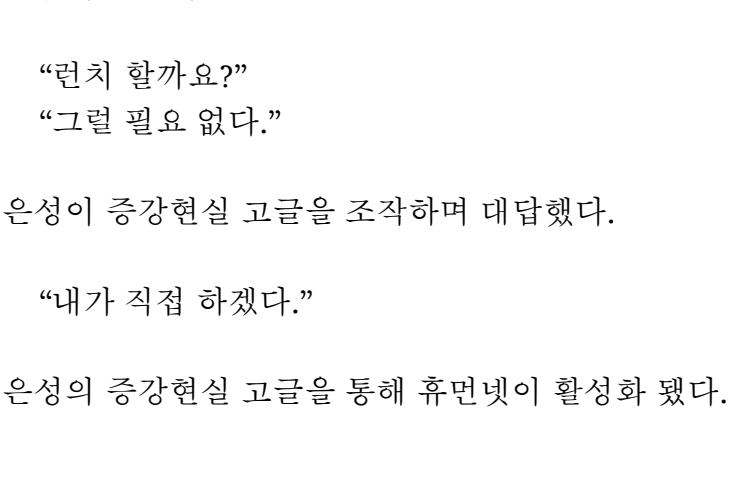
준섭이 물었다.

"런치 할까요?"
"그럴 필요 없다."

은성이 증강현실 고글을 조작하며 대답했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은성의 증강현실 고글을 통해 휴먼넷이 활성화 됐다.



Continued to ep.29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